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1)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

장순용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 연 재 순 서 ◇

<1회>

1. 출발집합!
2. 발리 이야기
3. 팜박씨링 사원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5. 발리의 전통가옥
6. 코끼리사원

<2회>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8. 보로부드루
9. 빠원
10. 문두
11. 프람바난

<3회>

12. 세우
13. 플라오산
14. 칼라산
15. 공항의 해프닝
16. 발리로 향하다
17. 따만아윌 힌두사원
18. 맺는말

1. 출발집합!

아침부터 복장문제가 귀찮게 머리속에 영긴다. 늦추위에 가볍게 입고 나갈 것인지 방한복을 선택할 것인지, 겨울나라에서 여름나라로 직행하는 여정이므로 당장의 편리함과 나중의 편리함에 대한 비중 판단이 망설여진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도 떠오르지만 도움이 안되고, 출발시간이 임박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돌아올 때쯤이면 겨울은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가볍게 입되, 스웨터 하나를 덧입기로 결정하였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소심해진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묘한 기분을 느낀다.

한길회 모임에서 지난 연말부터 해외기행을 마련했으니 참석하라는 권유가 수차례 있었으나 사무실 돌아가는 형편을 생각하니 관광길에 나선다는 것이 철없는 일로 생각되어 사양하다가, 정월 중순경 마지막 권유에 마지못해 승락하고 말았다. 가족동반이라 하기에 집사람에게 불쑥 해외여행 가겠느냐 물어보니 "남편 자식 먹여 살리려면 직장에 나가 일해야지 놀러 가겠소?"라는 대답에, 당연히 그럴거라 예상했지만 듣고 보니 언중유골이 느껴진다. 모른 채하고, "할 수 없지, 아들놈이 곧 군대에 가니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

에 부자간에 좋은 여행하고 오겠소"라고 응수하고 말했다.

마침 방학기간이고 하니 여행일정표를 보고 답사대상에 대해서 자료수집하여 공부하고 떠나자고 준비시키니 이런저런 자료 수집에 분주하다. 그런데 준비된 자료를 보니 깊이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먹고 자고 보는 단순한 관광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 그런대로 인터넷에서 뽑아낸 인도네시아 관광정보에서 사원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새삼 인터넷의 유용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과연 한국의 관광에 대한 인터넷 정보는 어느 수준인지 궁금해진다.

공항에 도착하니 일행이 속속 집합하는데 예정인원 21명중에 일부가 포기하여 17명이 확정되고 그중에 한길회 회원인 건축사는 11명이고 동반하는 사모님 세분, 아드님 셋이라고 알려준다. 어렵사리 만난 회원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출국수속을 기다리고, 비행기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루다 비행기라고 한다.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마가 타고 다니는 새를 가루다라고 하여 신격으로 숭상된다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신을 항공사 이름으로 명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된다.

당초 여행일정 계획에는 족자카르타에서 1박하고 발리에서 2박하는 것이었는데 출발 며칠전에 수정된 최종 일정표에는 시작과 마지막을 발리에서 하고 족자카르타는 중간에 돌아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족자카르타에 집중되어 있어 불만스러웠는데, 공항에서 듣자하니 가루다 항공사에서 비행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저렴한 항공료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차피 여행길에 나섰으니 행동과 숙식은 진행되는 대로 맡기고, 보고자 하는 내용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챙기기로 하고 사무실 걱정도 당분간 잊기로 결심하니 몸이 가벼워진다.

가루다 항공사의 보잉기는 관록을 자랑하는 지 기내의 진동소음이 유난스럽고 창문은 굵힌 자국으로 내다

보기도 어지럽고 화장실도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지 불평하는 소리로 들린다. 대한항공이 독점하는 시절에 KAL기도 이와같은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다.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하여 5시간 정도 지나니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탑승하여 발리의 공항에 도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부 중부 서부가 시차가 있어 동부는 우리나라와 시간이 같고 발리는 중부로 1시간 늦고, 족자카르타는 2시간이 늦다고 한다. 난생 처음 적도 남쪽으로 내려와 본다. 북반구에서의 방위개념과 이 나라에서의 방위개념이 건축과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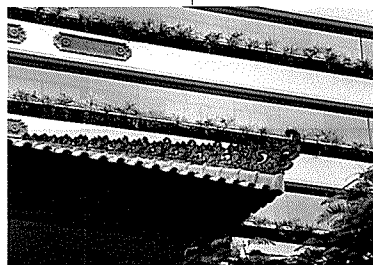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여행사에서 마중 나왔고 보도사진에서 보던 꽃목걸이를 현지인이 일일이 걸어준다. 장시간 비행후 후덥지근한 날씨에 꽃향기와 밤거리의 이국풍경에 알뜰뜰한 기분이 마치 무중력상태의 세상에 내려선 듯하다.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하고 출발하자 서울에서 동행한 여행사 직원이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 권양을 소개한다. 이곳의 일정에 대해 끝까지 돌보겠다는 명랑한 인사말과 함께 규정상 동행해야 한다는 현지인을 소개한다. 제도적으로 권양은 통역사이고 현지인이 가이드가 되는 모양이다. 현지인은 권양이 한국말을 가리킨 학생중에 실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한다.

발리에서 가장 큰 호텔이라는 발리비치호텔이 목게될 숙소이고 이 섬에서 10층 높이의 유일한 최고 빌딩이라고 한다. 이 호텔이 들어서자 해변의 경관을 가로막는다고 하여 도시계획 규정을 개정하여 아자수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유로는 높게 지을 수 없기 때문이란 다. 아자수 높이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호감이 든다. 법규정도 이런 친근감이 드는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의 건축법규에도 응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교차한다.



발리비치 호텔 현관



발리비치 호텔 지붕장식



호텔 객실에서 본 해안경관

호텔에 도착하여 과일향기가 나는 음료수를 대접받고 방 배정을 받은 후 내일의 일정에 대해 설명듣고 각자의 카드를 받아주고 방에 드는 것으로 첫날 하루가 마감되었다.

2. 발리 이야기

호텔에서 발리식 뷔페로 아침을 먹고 원주민들이 공연하는 바롱댄스(Barong Dance) 관람으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목초의 공연장은 이미 관광객으로 만원이고 화려한 의상에 가면을 쓴 배우가 울동하고, 무대의 한 옆에 자리잡은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소리가 열정적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리의 언어로 연기하는 대사도 무슨 소린지 알 수 없고 입장시에 나누어준 한 장의 한국어 설명서를 읽으면서 눈치껏 짐작할 뿐이다. 연극의 요점은 선을 상징하는 바롱과 악을 상징하는 랑다와의 끝없는 대결이며 해피엔딩으로 종결된다. 발리의 민속춤을 보았지만 문화의 이해없이는 피상적인 구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버스에 오른다.

발리섬 북부에 있는 깐따마니 화산지대로 가고 있다. 길가에는 작은 점포들이 연이어 있는데 전통적 문양으로 나염한 직물인 바틱점과, 목공예점, 석공예점, 은세공점 등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품종이고 자동차 수리소, 가구점 등도 눈에 띈다. 관광객 덕분에 차량은 붐비게 움직이나 길거리는 한산한 편이다. 점심때가 되자 길거리 곳곳에서 차려입은 여인들이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이곳 저곳에 진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85% 정도가 이슬람교도이나 발리섬은 80%가 힌두교를 믿는다고 하며 일년내내 끼니 때마다 식사하기 전에 공양의식을 행한다고 한다. 나무잎으로 10cm각 정도의 풀바구니를 만들고 꽃과 약간의 음식을 담아 한집에서 20여개소에 공양하며, 바구니를 만들고 음식준비를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여성이 한다는 설명을 듣는다. 평생토록 공양의식에 소비하는 발리여성들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여러가지 질문이 이어진다.

이 곳 여성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는 권양의 설명으로 공양에 대한 화제가 수그러 들었다. 지나가는 곳곳에 돌로 조각한 제단과, 기단을 갖춘 초가형의 제단, 2층 3층의 탑형 제단 등이 어지럽게 스쳐가는데, 이곳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멋지고 크게 만드는 제단을 갖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신의 도움으로 성공한 것을 상징하여 자랑스럽게 치장하게 되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 그 형태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종교가 일상생활에 깊게 밀착된 것으로 보여지고 외부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종교적 생활이 지속되는 바탕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차창에 빗방울이 들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3월까지의 우기라 하는데 모처럼 나들이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걱정이다. 폭우속에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식당에 도착하여 발리식 뷔페로 점심을 먹는데 화산지대 구경이 비와 농무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점심메뉴중에 바나나튀김과 꼬치구이가 인기있어 금세 동이어나고 만다. 삼삼오오 앉아 정담을 나누는데 은연중에 심기가 불편해진다. 이런식으로 여행이 계속된다면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식당의 손님으로는 대만사람이 단체로 드나들고 일본인은 가족끼리 즐기고, 한국인도 단체 또는 신혼부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식사후 이동할 때에야 비가 걷히고 산의 윤곽이 슬며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해발 1,750m Batur산 옆구리에서 수증기가 분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산의 동편으로 느 바뚜르 호수가 보인다. 화산의 폭발로 이루어진 칼데라 호수이고 반달형상으로 장변의 길이가 11km에 수심은 18m가 되며 언제 다시 폭발할지는 미지수라 한다.



차창에서 본 가로변 사당



도로변 꽃가게



로타리 장식

고산지대여서 한 여름에도 이곳의 기온은 서늘하고, 호수 건너편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원시적인 형태로 살고 있는 Aga 부족이 산다고 한다. 동족 결혼에 외부인에게는 적대적이고 풍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관광객이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락을 받아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급자족으로 고립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의 생활상에 호기심이 발동하지만 설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3. 땀박씨링 사원

정상적인 첫번째 답사 장소인 땀박씨링(Tampaksiring) 사원으로 향한다. 땀박씨링은 마을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Pura Tirta Empul이다. 퓨라는 발리에서 사원의 뜻이고, 어순에서 주격이 먼저 오고 형용사가 뒤에 따르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볏짚밥을 밥볶음, 비빔국수를 국수비빔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며 원시적인 언어의 형태가 아닌가 하고 추측해보게 된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거창한 나무밑에 제단이 설치되고 천으로 둘러 감은 모습이 얼핏 우리의 서낭당을 연상케 하는데 여인이 무릎꿇고 앉아 정성스레 치성드리는 광경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망을 신에게 부탁하는 정경이 낯설지 않다.

입구 주변에는 원주민 소녀들이 과일을 팔고 있고 사원은 주민들의 공원처럼 사용된다. 입구 중앙에 현대적인 분수대가 마련되고 있고 왼편에 사원의 문이 있다. 우리의 향교건축에서 외삼문 내삼문이 배치된 바와 같이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탑을 수직으로 쪼개 좌우로 배치한 특이한 형태이다. 출입구 부분은 수직면으로 만들고 그 좌우면에는 조각장식에서 공룡의 모습이 얼핏 연상된다. 이 출입구와 다음의 출입구 사이가 앞마당이 되는데 마당 우측편에 집회장소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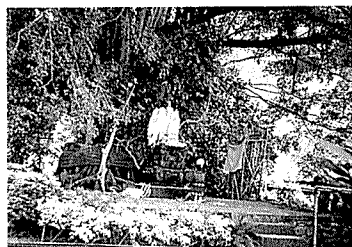
되는 건물이 있다. 오른손을 숭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오른편에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하나 질문에 대해 줄 만한 안내자는 아닌 듯 싶어 그대로 지나친다.

제2의 문에 도달하니 앞의 문보다 치장도 더욱 많고 문폭이 좁아졌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목욕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왼편이 남자용이고 오른편이 여자용이었는데 사원 참배에 앞서 목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나 관광객이 많아져 이곳에서 목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석루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조각된 장식물에서 물이 토출되고 있다. 일종의 샤워시설인 셈이다. 한편으로 난 통로를 따라서 목욕장을 지나면 사원의 중심부에 이른다. 돌과 벽돌을 혼용한 기단에도 각양의 조각이 베풀어지고 그 위로 목조건물을 세워 초가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목재 승골로 지붕을 덮은 건물이 웅기종기 배치되어 있다. 초가집에 당초문양으로 조각하고 원색으로 칠을 하여 단청이 베풀어져 있다. 한국건축에 익숙한 눈으로 보니 혼란스럽다. 더구나 발리의 힌두교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고보니 산만하기도 하고 석조기단위의 초가집에 단청이라는 조합이 생경스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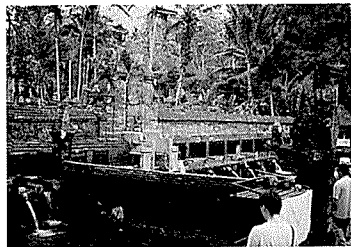
이곳의 벽돌쌓기에서 줄눈없이 밀착되도록 쌓은 특징이 있으며 접착용 몰탈도 없이 쌓는다고 한다. 담장 한편에 약간 붕괴된 곳이 있어 벽돌을 살짝 들어보니 습기로 인해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나 움직인다. 역시 몰탈은 없었다. 붉은 벽돌의 소성온도도 높지 않은 듯하고 벽돌끼리 마주비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축조된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여인이 관광객이 있거나 말거나 제단 앞에 과일과 꽃을 공양하고 기도에 열심인 모습이 보인다. 문화와 종교는 달라도 재난을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인간의 모습은 본능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황혼길에 은세공점과 목각마을을 들려 상품을 구경하고 해변의 방가로를 구비 돌아 한국인이 경영하는 청기와 식당에서 낮익은 만찬으로 하루의 노곤함을 씻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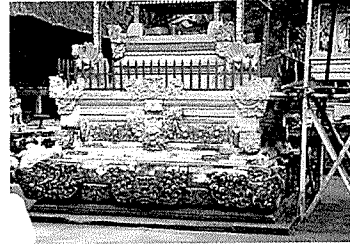
땀박씨링 입구부근의 치성광경



땀박씨링 목욕장



땀박씨링 사당군



땀박씨링 사당의 기단장식

새끼 돼지 바베큐가 특별메뉴로 나왔는데 고소한 특미에 한국산 소주가 나오고 일정을 지휘하는 총무님(방철린 소장)은 내일의 여정을 확인하느라 경황이 없다.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덕택으로 순조로운 여정에 동반하게 되는 고마움의 표시로 한잔 권하여 본다. 식사후 숙소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내일의 여정인 족자카르타 답사에 대한 안내가 있고 이어서 권양이 그곳의 가이드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 유적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더 이상의 안내자는 없는데 성격이 좀 팔팔해서 관광객과 말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좀 유별난 가이드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인도네시아의 유적이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며 서로 융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힌두교가 인도에 존재하는 종교로서 소를 신성시한다는 정도의 유치한 상식에 없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답사 유적의 성격 파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의로는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를 힌두교라 하며, 좁은 의미로는 아리안족의 인도침입(B.C2000~B.C1500 ?)이후 아리안 계통의 바라문교(婆羅門敎)가 인도 토착의 민간신앙과 융합하고 불교 등의 영향도 받으며 300년 경부터 종파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정한 교조와 체계를 갖고있지 않다는 것이 타 종교와 유다른 형태이며 다양한 신화, 전설, 의례, 제도,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적 형태를 가능케 하는 기능이 카스트 제도로써 종교와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카스트 제도는 엄격하고 신앙 자체는 관용적이다. 힌두교에서는 신전과 신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인격신이 신앙되며 희생제를 반대하여 육식이 금지된다. 힌두교의 성전(聖典)에는 베다, 우파

니샤드, 브라흐마나, 수트라 등이 있어 인도의 종교적 사회적 이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성전에 준하는 것으로는 바라타족의 전사시(戰史詩)인 마하바라타, 라마의 기행인 라마야나의 2대 서사시가 있어 종교예술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힌두교의 신에는 창조신인 브라흐마, 유지와 번영의 신인 비슈누, 파괴와 죽음의 신인 시바의 삼신을 일체로 하여 다신교적이지만 삼신일체(三神一體)라 하여 교묘히 통일시키고 있다. 힌두교의 종파에서 비슈누파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비교적 상류층에 신앙된다고 하니 고려시대에 왕권의 강화를 위해 귀족층에서 선호한 불교의 화엄종이 생각한다.

반면에 시바파는 사회의 하층부에 세력이 있고, 수행자의 고행과 주술, 그리고 열광적인 제례에 특색이 있다. 고행은 주로 육체의 수련이고 요가는 정신적 수련을 의미한다. 근엄한 종파보다는 열정적인 제의를 행하는 시바파가 대중에게 선호되었을 것을 짐작하게 되고, 어쩌면 현실의 고난을 시바신이 파괴하여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였는지도 모르겠다.

5. 발리의 전통가옥

땀박씨링 사원에서 발리의 전통가옥을 향해 가다가 과일점 앞에서 잠깐 세운다. 우중에 열대과일을 구경하고 목을 축이고 가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갖가지 과일에 대한 명칭을 들었으나 한꺼번에 듣다보니 외우는 것은 포기하였고 특징으로 동료간에 소통이 된다. 껍질이 멍게처럼 생긴 것, 속열매가 마늘처럼 생긴 것 등등이 있는데, 냄새가 고약한 두리안이라는 과일도 있었다. 강정식품류에 속하는지 맛을 아는 사람은 최고로 친다는 과일이고 값도 비싼 편이다. 한 점을 먹어보니 맛은 있는데 냄새는 역겨웠고 그 냄새가 오후내내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다. 호텔에서야 아침용으로 챙기기도 하고 서로 권해보기도 하며 잠시 친진만난 때를 즐긴다.



발리 은세공점 현관 : 기둥의 배흘림이 완전한데 아자수 나무의 형상과 닮았다



주택의 대문 : 잘 가꾸어진 전통 주택으로 표창을 받은 집으로 왼편 기둥에 문패가 있고 그 밑으로 작은 감실을 만들어 공양을 베풀고 있다



대문의 문패 : 가구주의 이름과 구성가족이 장정, 여자, 자녀의 순으로 표시되고,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마다 각각 부착한다



주택의 신당 : 이사를 거듭할수록 신당이 커지고 이곳에서 신성시하는 아공산을 바라볼 수 있다

주택가 앞에서 하차하여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아자수를 비롯한 열대식물로 이루는 가로수 풍경에서 이국적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한다.

흙벽돌로 문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는 이영형 식으로 이은 대문이 보인다. 대문 기둥에는 벽감을 두어 공양 의식의 장소가 마련되고 그 위로 액자가 걸려 있다. 이 지역의 문패리는데 가족 구성원의 호구조사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집 안에 여러 가족이 있으면 가족마다 걸게 되므로 이 문패를 보면 누가 식구 몇명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치 주민등록등본을 걸어 놓은 셈이다. 마당에는 두세평 규모의 초가집들이 웅기종기 배치되었는데 해마다 잘 가꾼 주택을 품평하여 시장의 표창장을 받은 집이라고 한다. 노인의 거처와 장자의 거처, 그리고 동거 가족의 구성에 따라 각자의 처소가 마련된다고 한다. 마당 한편에는 사당이 연립된 곳이 있는데 한번 이사를 하면 먼저 살던 집의 신주를 모셔오고, 또 이사한 집에 새로운 신주를 마련하므로 사당의 수효를 보면 몇번 이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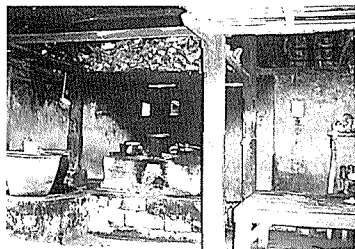
초가집이지만 기단은 돌과 벽돌로 치장을 제대로 하였고, 기후관계이겠지만 벽체의 구성은 단순하고 개방적이다. 부엌간도 따로 있어 공동취사가 되는 것 같다. 장자가 거처하는 건물은 맞배지붕 형태의 초가가 물매가 급하여 다락방을 형성하듯이 하였는데 곡식창고로 사용된다고 한다. 농경 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골목길에는 닭이 방목되는지 공양물을 헤집고 다니고 개, 고양이도 보인다. 공양물이 가족들의 먹이가 되는 것에서 우리의 까치밥이 연상된다.

주택에 정성들인 기단으로 축소하는 이유를 궁리하다보니 우기에 배수문제와 습기와 건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전통이었을 것으로 해석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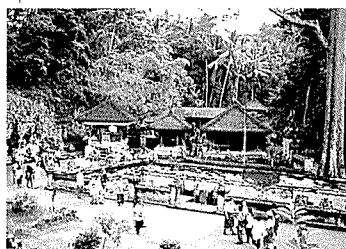
골목 어구에 있는 집에도 사원의 대문 형태로 치장한 것도 있으며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



장자의 거처 : 아래층은 침실이고 지붕에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물매가 크게 되어 있다



부엌 : 대가족으로 구성된 집에서 부엌은 별도로 독립되었고, 취사 도구도 단순하게 보인다



코끼리 사원 전경 : 왼편에 암벽 동굴이 있다



코끼리 사원의 신당

이고, 공회당도 마련되고 있다. 마을에서 관혼상제가 있으면 공회당에서 회의를 열어 각자가 마련할 품목을 정하고, 공동참여로 의식이 진행되며 참여가 불성실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6. 코끼리 사원

저녁 무렵에 고아 가자(Goa Gajah) 사원으로 향한다. 코끼리 동굴이라는 뜻이라고 하므로 Goa가 동굴이고 Gajah가 코끼리의 의미일 것이다.

계곡속에 숨겨진 것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하며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사원의 전경이 보이는데 목욕장과 사당 등의 모습은 땀박서린 사원과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경역 왼편으로 암벽에 거대한 귀면상을 조각하였고 귀면의 아가리에 해당하는 곳에 동굴 통로가 형성되었고 두사람이 간신히 비껴나갈 폭의 통로로 관광객이 연신 드나드니 동굴 입구는 붐비기 마련이다. 안에는 가네샤(Ganesha)라는 코끼리 얼굴에 사람의 신체 형상을 한 동자상이 있고 힌두교에서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예배 대상이 있다. 가네샤는 시바신의 아들격으로 코 끝이 왼손바닥 위의 물건을 탐하고 있고 발바닥은 함장한 형태로 배를 내밀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코로 손위를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학문의 신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결국 이 동굴은 힌두교 승려들의 수도처였을 것으로 추리되고 있다고 한다. 되돌아 나오면서 목욕장을 다시보니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보살이 항아리를 안고 기울여 붓는 형상이다. 모두 6구가 있는데 영어 설명문에는 님프 상이라고 되어 있다. 님프보다는 보살이라고 칭하는 것이 형상의 전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는 어느덧 저물어 가고 사원 입구에 상인들의 호객행위는 여정을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속에서 귀로에 오른다.